

‘바다의 슈퍼푸드’ 완도산 해조류 재조명

각종 영양소 풍부...몸속 미세먼지 배출 등 효능
르몽드 현지 취재·심포지엄 등 미래 먹거리 각광

완도는 ‘바다의 슈퍼 푸드’라 불리는 미역·다시마·톳·김·매생이 등을 생산하는 해조류 본고장이다. 해조류는 한때 바다의 잡초 정도로만 취급받았지만, 각종 미네랄·식이섬유·비타민·칼슘·철분 등 풍부한 영양소 함유가 확인되면서 효능과 가치가 재조명돼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프랑스 일간지인 르몽드에서는 최근 완도를 방문, 김과 다시마 양식장을 취재했다.

“지구를 위해 해조류를 요리하는 한국”이라는 기사를 보도하며 해조류를 미래 먹거리로 꼽았다. 완도군에서는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된 미세먼지 문제를 해조류를 통해 해소하고 해조류 산업 발전을 위해 ‘몸속 미세먼지 배출에 효능이 있는 해조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국립암센터 국제대대학원대학교 김지미·김정선 박사팀이 해조류 섭취가 대장암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미역

한 결과 다시마와 미역이 대장암 발생 위험을 각각 42%, 18%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조류를 섭취하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비만과 같은 질환은 물론 우울증·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완화하는 데 영향



매생이

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바다의 슈퍼 푸드 해조류 국내 최대 생산자인 완도군은 전국 생산량 대비 톳은 40%, 미역은 52%, 매생이는 60%, 다시마는 80%를 생산하고 있다. 완도 전 해역이 생리활성 촉매 역할을



다시마

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돼 있고 깨끗한 바닷물을 유지하고 있어 해조류의 맛과 향이 뛰어나며 영양도 가득하다. 톳은 무기질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며, 미역은 칼슘·칼륨·철·요오드 등을 함유해 고혈압과 골다공증 예방에

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생이는 청정지역에서만 생산되는 ‘무공해’ 식품으로 비타민 A와 C, 칼슘, 칼륨이 풍부하고 우유보다 40배나 많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다. 다시마는 알긴산과 요오드, 칼슘, 비타민C 등이 풍부하다. 알긴산은 장 연동운동을 원활하게 해 숙변 제거 및 대장암을 예방하고 동맥경화와 담석증, 갑상샘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 잔가시모자반, 우뚝가사리 등도 효능이 밝혀지면서 완도군에서는 이를 활용한 기능성 물질 및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5일 “해조류의 효능이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주목받고 있다”며 “종류와 조리법도 다양하므로 평상시 식단을 구성할 때 완도에서 생산되는 해조류를 꼭 넣어 가족 입맛도 잡고 건강도 챙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이승욱 강진군수가 올해 식량작물 계약재배 수매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식량작물 계약재배’ 농업인 호응

쌀귀리 등 올해 물량 5천여톤 수매 완료
2010년 전국 첫 도입...소득 증대 견인

강진군이 농산물 유통 마케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식량작물 계약재배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계약재배는 관외로 원료곡을 유통시켜 강진 관내 원료곡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시세 안정과 농업인 소득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내고 있다. 5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국내 최대 곡물유통업체인 두보식품(주)과 계약재

배를 시작했다. 찰벼와 흑미, 메벼 등 식량작물 8개 품목이 대상이다. 올해의 경우 벼와 쌀귀리 계약재배 수매량은 5,146톤으로, 261 농가가 참여한 한들농협과 도암농협에서 지난달 말 수매가 완료됐다. 농업인들의 운송 편의를 위해 도암면을 비롯한 5개면은 도암농협에서, 병영면 등 6개면은 한들농협에서 수매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6월말에는 63농가를 대상으로 615톤의 쌀귀리 수매를 완료 했었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벼와 쌀귀리 계약재

배 매출액이 82억원에 달하는 등 식량작물 계약재배사업이 지역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계약재배 물량 작성에 따른 자가 창고 보관과 판매대금 지급 지연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년 전부터 농협 위탁수매로 진행해 계약재배 농업인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안전섭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작물연구팀장은 “올해는 잦은 태풍으로 인해 벼작황이 좋지 않아 농가들의 시름이 많은 해였다”며 “수매업체와 농업인들 사이에 지속가능한 계약재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명현관 해남군수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상 전국 최초 농민수당 도입 등 농업·농촌 발전기여

명현관 해남군수가 전국 최초 농민수당 도입 등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9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농업대상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목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인물을 발굴해 공로를 치하하고 우수한 사례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올해 첫 제정됐다. 수상자는 국가농정분야, 지방농정분야, 농촌진흥사업분야, 농업인분야, 농산업분야 등 5개분야에 걸쳐 1차 서류심사와 2차 시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됐다. 명 군수는 민선7기 농정분야 대표

공약으로 농민수당을 도입, 전국 최초로 올해 첫 지급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농민수당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표명으로 농업인의 위상을 높인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해남군은 특히 농민수당을 지역 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성공적인 선례로 후속 지자체들의 성공모델이 되고 있다. 또 100대 국정과제 선도 지자체로서 2030 해남푸드플랜의 추진과 우수

한 농수특산물로 맛있는 먹거리를 선보인 제1회 해남미남축제 개최 등 짧은 기간 동안 농업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냈다. 명 군수는 “올 한해 동안 해남군은 우리나라 농업농촌 발전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거뒀는데 대표농민단체로부터 공로를 인정받게 더욱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농업발전을 이끄는 선도 지자체로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농업대상 시상식은 오는 11일 수원 농민화관에서 농촌지도자 제72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해남·박병태 기자



목포 대양산단 화물차 공영차고지 민자유치 27일까지 제안서...600대 주차장 등 건설

목포시는 5일 “대양일반산업단지에서 화물차 공영차고지 운영시설을 민간자본 유치로 건설한다”고 밝혔다. 화물차공영차고지는 9만1,510㎡ 부지에 60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운전자들을 위한 휴게소, 식당, 수면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관

리동과 주유정비 등도 갖추게 된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이후 사업자 선정, 실시계획 및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2021년까지 공영차고지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추정 사업비 122억원을 전액 민간사업자가 조달하게 되면 목포시는 시비 부담

없이 지역에 꼭 필요한 공영차고지를 확보하게 된다.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목포신항, 무안국제공항, 서해안고속철도, 서해안과 남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통팔달 물류거점으로 목포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질적인 민원으로 제기돼왔던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지역경제 채용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목포·박승경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해남 찾아가는 치매예방서비스 졸업식

해남군이 찾아가는 치매예방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최근 졸업장 수여식을 가졌다. 해남군은 지난 5개월간 관내 2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 3회, 총 1,440회에 걸쳐 찾아가는 치매예방 서비스를 실시했다. 졸업식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 교육에 꾸준히 참여한 어르신 350여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건강 생활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해남군 치매예방서비스는 전문 강사들이 투입돼 치매 바로알기 교육, 치매 예방 체조, 공예·미술 등 인지기능 활동, 두뇌 훈련을 위한 보드게임 등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졸업식에서는 교육 과정에 꾸준히 참여한 어르신 350여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건강 생활을



전동평 영암군수, 동절기 민생 투어

영암군은 5일 “전동평 군수가 동절기 형 복지사각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전 군수는 “마을주민간 소통과 화합의 공간인 마을회관이 무더위 쉼터이자 행복 나눔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 섬김행정, 서비스행정을 실천함에 군민행복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영암군은 5일 “전동평 군수가 동절기 형 복지사각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전 군수는 “마을주민간 소통과 화합의 공간인 마을회관이 무더위 쉼터이자 행복 나눔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 섬김행정, 서비스행정을 실천함에 군민행복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강진군청록회 ‘사랑의 집’ 8호 준공

사회봉사단체인 강진군청록회(회장 김병수)가 읍면 송송마을에서 ‘사랑의 집짓기(공부방) 제8호’를 준공했다. 최근 진행된 입주식에는 이승욱 강진군수와 마을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표창 및 공로패 전달, 입주자 선물·열쇠 전달 등이 진행됐다. 8호 사랑의 집은 정록회, 김호제 강

진주류 대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축신축 매칭그랜트사업과 강진군 보조금 등이 더해져 의미를 더했다. 김병수 회장은 “청록회 회원들의 아낌없는 참여와 도움으로 40㎡ 규모의 사랑의 집 제8호를 완성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